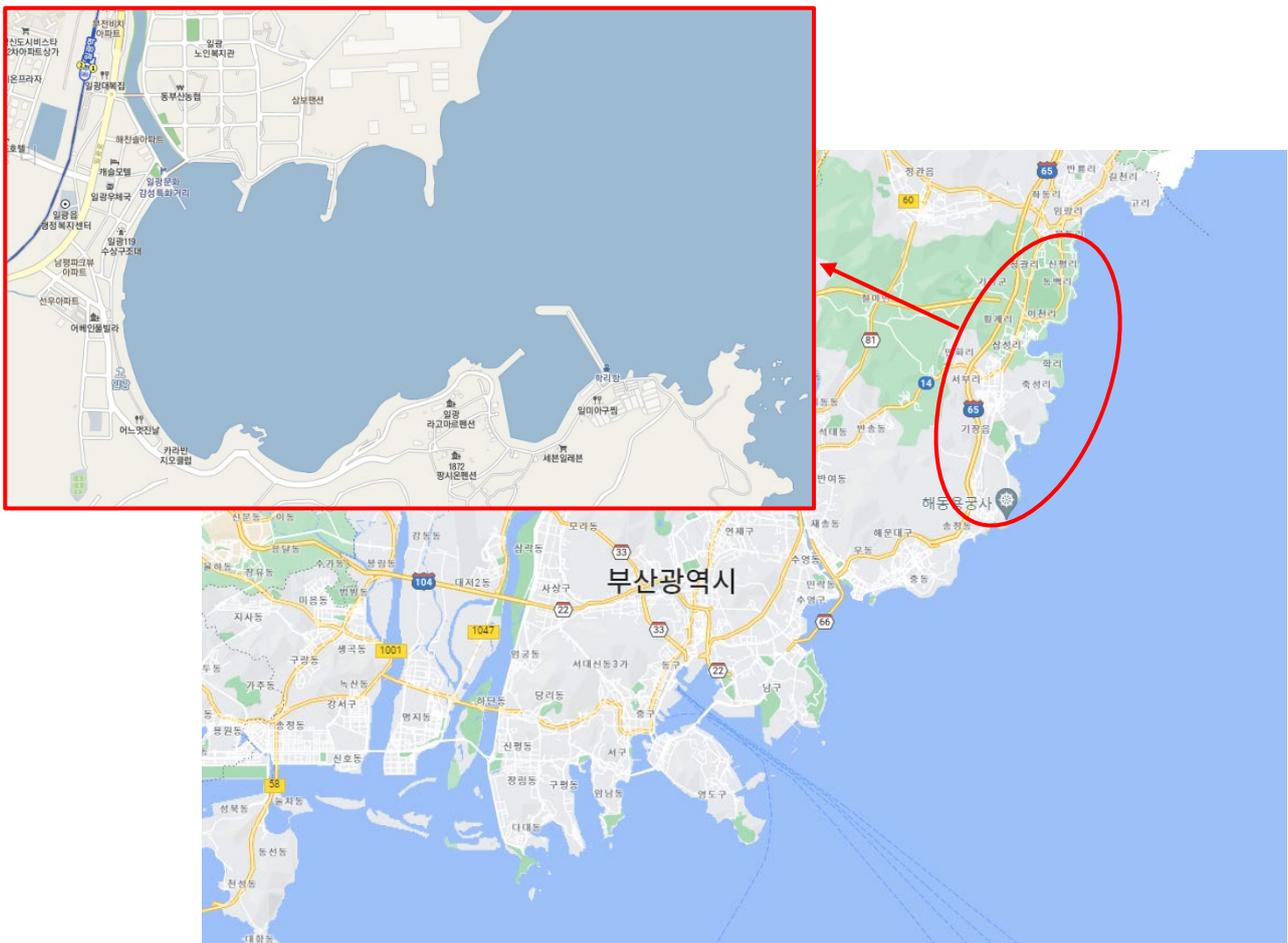


## 2023바다미술제 전시장소 소개

역사적으로 기장 8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일광해수욕장은 과거에 해안선을 따라 노송 숲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고려시대부터 정몽주를 비롯한 인사들이 유람했던 절경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일광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 일광면 삼성리의 이름은 삼성대(三聖臺)에서 유래되었다. 삼성대는 '삼섬대'라는 옛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섬은 약수섬, 섬은 배를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고 한다. 현재는 백사장의 가운데 둔덕을 가리켜 삼성대라고 부른다.

일광해수욕장은 1953년 발표된 오영수의 단편소설 <갯마을>의 배경이 될 만큼 부산의 바다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1965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이 이곳에서 촬영되기도 했으며, 이의 자취는 마을에 남아 1995년부터는 해변축제로 발전했다.



## 일광해수욕장 일대 전경



[일광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일광역](#)



[이천교 일대](#)



[이천 어촌마을](#)



[강송정](#)

\* 가장구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 가능

\* VISIT BUSAN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 가능